

의대 합격선 3년 만에 '최고치' 최상위 쏠림에 의대 문 좁아졌다

9개 의대 전년대 최대 0.43등급↑ 의대 모집인원 원복 영향 반영돼 2027학년도엔 지역의사제 '변수'

2026학년도 의대 내신 합격선이 2025학년도는 물론 의대 모집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보다도 일제히 상승하며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 2026학년도 가톨릭대·울산대·경북대 등 9개 의대의 내신 합격점수는 전년 대비 최대 0.43등급, 2024학년도 대비 최대 0.63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종로학원이 가톨릭대, 울산대, 경북대, 전남대, 건양대, 한림대, 을지대, 경상국립대, 고신대 등 9개 대학의 2026학년도 의대 합격점수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 대학 모두 내신 합격점수가 2025학년도와 2024학년도보다 모두 상승했다.

2025학년도 대비 상승 폭은 을지대가 1.61등급에서 1.19등급으로 0.43등급 올라 가장 컸고, 이어 ▲한림대 1.70등급→1.32등급(0.37등급) ▲건양대 1.43등급→1.13등급(0.31등급) 순이었다.

	2025	2026	상승폭
을지대	1.61	1.19	0.42↑
한림대	1.70	1.32	0.38↑
건양대	1.43	1.13	0.30↑
경상국립대	1.37	1.11	0.26↑
경북대	1.51	1.35	0.16↑
가톨릭대	1.42	1.30	0.12↑
고신대	1.36	1.26	0.10↑
울산대	1.23	1.15	0.08↑
전남대	1.20	1.15	0.05↑

*합격점수 공개 9개 의대 자료/ 종로학원

2024학년도 대비로는 한림대가 1.96등급에서 1.32등급으로 0.63등급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울산대 1.46등급→1.15등급(0.31등급) ▲경북대 1.62등급→1.35등급(0.27등급) 순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 뒤 2026학년도에 정원이 다시 원복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봤다. 동시에 정원 확대 이전인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도 9개 대학 모두 합격점수가 상승한 것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이 더 집중

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권 의대의 전국선발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을 비교하면 2026학년도에도 전국선발 전형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된 곳이 많았다. 전국선발 전형 합격선이 더 높게 형성된 것은 전국 단위 최상위권 학생이 집중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진 반면, 지역인재 전형은 지원 자격 제한으로 경쟁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7학년도에는 지역의사제 도입도 변수로 꼽힌다. 종로학원은 현재 추세상 지방권 의대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이후에는 전국선발 전형, 지역인재 선발 전형, 지역의사제 선발 순으로 합격선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내신 최상위권 학생들의 의대 선택 집중 현상이 더 강해지고 있다"며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가 있어 다른 전형보다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서류와 면접 등의 영향이 큰 수시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t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AI 등 '비전2030 펀드' 600억 출자

상반기 총 9350억 펀드 결성 추진 AI·창조산업·스케일업 등 4개 분야 스타트업 자금난 완화, 신산업 육성

서울시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투자시장 위축 속에서 초기 스타트업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비전 2030 펀드'에 상반기 600억원 출자약정에 나선다. 민간 투자 공백을 보완하고 AI·피지컬AI 등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AI일반 ▲피지컬AI ▲창조산업 ▲스케일업 4개 분야에 600억원을 출자약정하고, 총 935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비전 2030 펀드'는 서울시 출자금에 정부·민간 투자금을 매칭해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정책형 펀드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조 원 규모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분야별 적재적소 투자를 통해 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글로벌 AI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피지컬AI' 분야를 신설하고 100억원을 출자 약정해 로봇·자율주행 등 피지컬AI 분야 관련 특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AI 일반 분야에도 150억원 출자약정을 진행함으로써 AI 인프라 및 핵심모델, 데이터분석·컴퓨팅, AI융합서비스 등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 또한 지속해나간다. 서울의 소프트웨어를 견인하고 있는 창조산업 분야에도 150억원을 출자 약정한다.

펀드 운용사 제안서는 서울경제진흥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출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펀드 운용사는 5월 8일 오후 2시까지 관련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서울시는 새로운 전략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든든한 조력자로서 서울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광주시, 강남 13분대 생활권 시대 연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 승인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일부 구간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수도권 동남부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제2·3공구, 우선 착공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데 대해 "강남권 13분대 생활권 구축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승인된 구간은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 광주시 역동까지 이어지는 경기도 구간 중 우선 착공이 가능한 구간이다. 시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중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승인으로 해당 사업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사업

이 완료되면 경기광주역에서 수서역까지 이동 시간이 10~13분대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서역을 중심으로 운행 중인 SRT와 GTX-A와의 연계를 통해 수도권은 물론 전국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 경강선과의 연계 효과로 광주시는 수도권 동남부의 교통·경제 거점 도시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시는 인접 지역에서 제기된 현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원만한 조정을 추진하고, 국가 철도사업이 상생 기반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실시계획 승인은 광주시가 사통팔달 철도 중심 교통도시로 도약하는 출발점"이라며 "미승인 구간도 조속히 정리돼 전 구간이 빠르게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지구의 날 맞아 서울 내 학교 10분간 소등

서울교육청, 22일 관내 학교 대상 기후위기 대응 등 프로그램 운영

오는 22일 서울 전 학교에서 10분간 불을 끄는 소등행사가 진행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를 포함해 학생과 교직원,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기후위기 대응 교육·캠페인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제56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올여름 역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모든 초·중·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구의 날 계기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학생과 교직원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도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해당 자료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함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행동이 담겨 있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지구의 날 당일인 4월 22일 오후 8시에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등행사 참여를 독려한다. 이 행사는 10분간 불필요한 전등을 끄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학생,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 실천 캠페인이다.

/이현진 기자

꽃으로 물드는 고양시... 24일 꽃박람회 개막

17일간 일산호수공원서 개최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 '제18회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오는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17일간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1997년 첫 개최 이후 누적 관람객 900만 명을 돌파한 이 행사는 국내 대표 화훼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박람회는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총 25만㎡ 규모 공간에 아와·실내 전시와 공연, 체험 프로그램, 플라워마켓 등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단순 관람형을 넘어 체험과 참여 중심으로 확장된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봄의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야외 전시는 '시간'을 주제로 한 몰입형 공간으로 꾸며진다. 메인 공간

인 '시간여행자의 정원'에는 높이 13m, 폭 26m 규모의 대형 조형물이 설치되며, 회전하는 구형 꽃 구조물을 통해 시간의 흐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공연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이와 함께 수상꽃자전거 체험, 지역 화훼농가가 참여하는 플라워마켓, 농특산물 판매장 등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박람회장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과 GTX-A 킨텍스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셔틀버스와 임시주차장도 운영된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4월 20일(월) 해돋이/05:51 해질/19:12

음력: 3월 4일

수도권 날씨 14 ~ 19℃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1/18, 동두천 12/19, 가평 11/19, 파주 11/18, 서울 14/19, 양평 13/20, 인천 12/16, 수원 13/18, 용인 13/18, 평택 12/1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트럼프 "이란과 협상 순조"…해협 봉쇄 시도에 "협박 안 통해"
▲베네수 마차도 "트럼프에 노벨평화상 메달 건넨 걸 후회 안 해" /사진 뉴시스

▲이란IRGC, 호르무즈 재봉쇄 발표 "미해군 해상봉쇄 끝나야 해제"
▲월드컵에서 하프타임 쇼를?...“상업적 흐름” vs “가치 훼손”

▲교황 "트럼프와 논쟁 관심 없어...평화 메시지 계속"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하프 마라톤 인간 세계 기록 경신